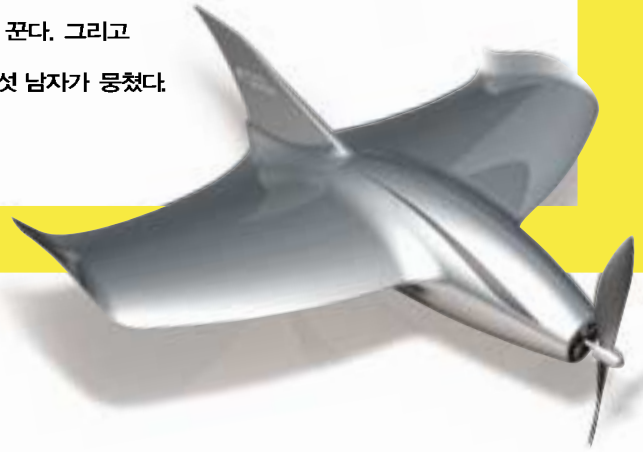


그들의 상상이 과학이 된다

종이 비행기 만한 진짜 비행기 만드는 마이크로에어로봇

하늘을 새처럼 난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1903년 겨울, 라이트 형제의 시험 비행이 성공한 이래 인류는 그 꿈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공을 나는 꿈을 꾀다. 그리고 한 세기가 흐른 2003년, 자신들의 상상으로 인류의 꿈을 열겠다는 다섯 남자가 뭉쳤다.



Fly, Fly

어디를 보아도 비행기뿐이다. 플라잉에 빠져 플라잉에 모든 것을 건 마이크로에어로봇은 모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연구진들로 구성 되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엉뚱한 상상을 많이 했다는 이들은 2003 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 학생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소위 '뺨다'. 이후에도 능률히 초소형비행체와 무인항공기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간간히 완구개발업체의 개발미팅에 참여함으로써 재차 기술력을 확인한 마이크로에어로봇. 기술력이라는 든든한 밑천이 있으니 느슨해질 법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행보는 더욱 촘촘하다.

13cm의 기적

이들이 2003년 5월 개발에 성공한 손바닥 크기만 한 13센티미터의 화상정보 수집용 초소형 비행체(MAV). 이 초소형 비행체는 미 우주항공국(NASA)과 록히드마틴사가 후원하는 '2003 International Micro Air Vehicle Competition' Endurance Mission에서 2위를 차지해 그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매년 새로운 개념의 MAV를 개발하고 있다. 창업 초기 비행체의 크기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인 반면, 작년 부터는 MAV의 성능을 고급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용기

이처럼 확실한 기술력은 마이크로에어로봇의 핵심이지만,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다. 하여 이들은 벤처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부로는 얻을 수 없는 리얼 노하우,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지문을 얻을 수 있는 주변의 인적네트워크를 꼽는다. 이와 더불어 벤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내공, 즉 위험관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귀띔한다. 벤처의 성공이란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들 또한 아직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길을 헤쳐 나가고 있는 중이다.

진짜 종이비행기

현재 마이크로에어로봇의 다섯 독수리는 Flying Robot과 Flying Toy 개발에 한창이다. 그중 Flying Toy는 올봄 그 첫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어린 시절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던 아이들이 지라, 종이비행기만한 진짜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비행완구를 통해 캐쉬카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비행로봇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마이크로에어로봇. 그들의 상상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마이크로에어로봇 Before and Now

◎ 대표 : 황희철 ◎ 설립일 : 2003년 6월 ◎ 인원수 : 5명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2-9 광진VBS 402호 ◎ 홈페이지 : www.microaerobot.com ◎ 주요연혁 : 2003년 10월 '2003 대한민국 창업대전' 학생부문 대상 · 2004년 8월 신기술보육사업(TBI) 사업자 선정(한국기술거래소)